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2.2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폴란드 의장국, 독립적인 FP10 프로그램에 대한 바르샤바 선언문 초안 발표(2.20)

- 폴란드 의장국은 3월 10~11일 진행되는 비공식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[바르샤바 선언문 초안](#)을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회원국 연구부에 보냄
- 선언문은 호라이즌 유럽과 호라이즌 2020이 글로벌 R&I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다년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, 집행위에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독립적 프로그램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FP10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
- 초안은 ERC와 EIC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FP10 예산이 다른 연구혁신 프로그램 비용으로 충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, FP10이 유럽 내 연구 격차를 줄이고, 사회 및 환경 기술 개발 및 시민 안보 연구 등 특정 분야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

○ 집행위 연구 결과, 여성 연구자의 고위직 진출에 여전히 큰 장벽 존재(2.20)

- 유럽 R&I 분야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한 집행위의 She figure 보고서는 여성이 초기 연구자 중 47%를 차지하는 데 반해 고위직(정교수 등)은 여전히 30%에 불과하다는 성별 격차를 강조
- EU 회원국의 성평등 지수 평가 결과로는 스웨덴이 88%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, 룩셈부르크(60%)가 최하위로 나타남
- 정책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벽으로 법적 지원 부족,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, 지속적인 성 편견, 리더십 역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감 부족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

○ 유럽, 방위 및 보안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기록 갱신(2.18)

- Dealroom과 NATO Innovation Fund(NIF)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, 유럽의 딥테크 방위, 보안 및 회복탄력성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털 자금이 지난 6년 동안 거의 5배 증가하여 2024년에는 52억 달러를 기록
- 특히, AI 및 컴퓨팅 분야의 유럽 스타트업이 2024년에 18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받았으며, 이를 생명공학, 에너지, 우주 분야 등이 뒤따름